

■ 연극배우 윤소정 · 1세대 무대미술가 이병복 별세

연극 무대에서 주로 활동해온 배우 윤소정 씨가 6월 16일 패혈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73세.

1962년 TBS 1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그녀는 50여 년간 ‘초분’, ‘따라지의 향연’, ‘신의 아그네스’, ‘잘자요 엄마’ 등 수많은 연극에 출연했다. ‘올가미’, ‘이재수의 난’, ‘이대로 죽을 순 없다’, ‘그대를 사랑합니다’ 등 영화와 ‘대망’, ‘잘했군 잘했어’, ‘내 딸 꽃님이’, ‘청담동 앨리스’, ‘결혼의 여신’, ‘폭풍의 여자’ 등 드라마에도 다수 출연했다. 특히 1997년 올가미에서는 아들에게 집착하는 시어머니 역으로 대중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사전제작으로 촬영을 모두 마친 TV 드라마 ‘엽기적인 그녀’가 유작이 됐다. 동아연극상과 대중상영화제 여우조연상, 이해랑 연극상, 대한민국연극대상 연기상 등을 받았다. 남편 오현경과 딸 오지혜 모두 배우인 배우 가족으로도 유명했다.

‘1세대 무대미술가’ 이병복 씨가 12월 29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0세. 1947년 이화여대 영문과 졸업 기념 공연인 ‘윈더미아 부인의 부채’에 출연한 것을 시작으로 무대와 인연을 맺었다.

결혼 후 1957년 프랑스 파리 유학을 떠나 조각과 의상을 공부했고, 귀국 후 1966년 연출가 김정옥과 함께 극단 자유를 창단했다.

이후 2006년까지 40여 년간 극단을 이끌면서 수백여 편의 작품에서 의상과 무대 미술 전반을 담당하며 ‘연극계 대모’로 불렸다. 한국연극계에 무대미술의 개념을 처음으로 소개했고 소도구를 무대미술의 개념으로 확장하기도 하면서 무대미술과 의상을 하나의 예술로 끌어올린 ‘1세대 무대미술가’로도 평가받았다.

동아연극상과 백상예술대상 무대미술상, 동랑예술상 등을 받았다. ‘따라지의 향연’과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 ‘아가씨 길들이기’, ‘도적들의 무도회’, ‘무엇이 될고하니’, ‘피의 결혼’, ‘바람부는 날에도 꽃은 피네’, ‘웃고-살’ 등 대표작을 남겼다.

한국 사실주의 연극의 계승자로 평가받는 극작가 겸 연출가인 윤조병 극단하명세 예술감독이 10월 11일 78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참새와 기관차’, ‘농토’ 등의 작품을 남겼고 대한민국 연극제 대상, 대한민국연극제 희곡상, 전국연극제 대상 등을 받았다.

무용

■ 개요

2017년 무용계는 국립 무용 단체들이 스타 무용수 위주에서 벗어나 안무가를 길러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적잖은 성과를 냈다. 이외에 중견 무용수들의 활약, 무용계 ‘아카데미상’으로 통하는 ‘브누아 드 라 당스’ 수상자·수상작 공연 등도 주목을 받았다.

■ “스타 안무가 찾아요”…국립단체들, 단원들에게 안무 기회

국내 무용계는 한국 무용수들이 세계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것과 달리 안무가층이 빈약하다는 지적을 지속해서 받아왔다.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국립발레단은 2015년부터 ‘국립발레단(KNB) 무브먼트’ 시리즈를 운영하며 크고 작은 성과를 내고 있다.

‘KNB 무브먼트’ 시리즈는 국립발레단 소속 무용수들이 안무가로서 춤을 만들고 공연을 기획하는 프로젝트다. 첫 회에서 안무작을 선보인 강효형은 무용계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브누아 드 라 당스’ 안무가부문 후보에 오르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국립무용단도 8월부터 단원들에게 소품 안무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인 ‘넥스트 스텝’을 시작했다. 단원들이 한국무용 기반의 차세대 안무가로 활약할 수 있도록 작품 개발의 전 과정을 지원한다.

국내외 안무가 초청 프로그램인 ‘픽업 스테이지’를 운영하는 국립현대무용단도 2018년 더 장기적인 안무가 육성 프로젝트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중견 무용수 활약…스타 발레 부부 황혜민-엄재용 은퇴

2017년은 중견 무용수들의 활동상이 주목받은 한해였다.

스페인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 김세연이 안무가로 한국 무대에 데뷔한 데 이어 낭만 발레 ‘자젤’ 전막 공연으로 관객을 만났다.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 출신 김주원은 연극 ‘라빠르트 망’에 출연하며 활동폭을 또 한 번 넓혔다. 국립발레단의 황금 콤비로 명성을 누렸던 김용걸과 김지영은 크고 작은 무대에서 견고한 파트너십을 과시했다.

무용 팬들이 아쉬워할 만한 이별도 있었다. 유니버설발레단(UBC)의 간판스타 무용수 황혜민과 엄재용 부부는 드라마 발레 ‘오네긴’을 끝으로 11월 동반 은퇴했다. 엄재용과 황혜민은 각각 2000년과 2002년 UBC에 입단한 이후 지난 15년간 뛰어난 파트너십으로 발레 팬들의 큰 사랑과 신뢰를 받아온 무용수들이다.

동료에서 연인으로 발전한 이들은 2012년 부부의 연을 맺으며 ‘최초의 현역 수석무용수 부부’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 떠나고 싶었다.”고 말한 두 사람은 2세 계획 등 ‘무용수 이후의 삶’을 현실적으로 고려해 은퇴 결정을 내렸다. 11월 26일 이들의 마지막 공연 날 발레 팬 2천여 명은 UBC에서 미리 준비한 ‘발레해 줘서 고마워’와 붉은색 하트가 인쇄된 플래카드를 흔들며 장관을 연출하기도 했다.

■ ‘브누아 드 라 당스’ 수상자의 품격…평창동계올림픽도 지원 사격

관객과 평단의 지지를 고루 받은 화제작들도 이어졌다. 특히 ‘브누아 드 라 당스’ 수상자와 수상작들이 품격 높은 무대를 선보였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세계 최정상 마린스키발레단의 수석무용수 김기민은 11월 '백조의 호수'를 통해 오랜만에 고국 팬들과 만났다. 그는 2011년 마린스키발레단에 동양인 최초로 입단한 뒤 초고속 승진을 거듭한 데 이어 2015년 수석무용수 자리까지 올랐다.

2016년 한국인 발레리노 최초로 브누아 드 라 당스 상을 받으며 세계무용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는 이번 내한 공연에서 특유의 '시간과 중력이 멈춘 듯한' 점프와 섬세한 연기력으로 큰 박수를 받았다.

국립발레단 무용수 박솔기와 이재우, 강효형이 2017년 4월 브누아 드 라 당스 후보에 한꺼번에 오르며 수상 기대감을 키우기도 했다.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 박솔기와 이재우는 각각 '최우수 여성 무용수(Female Dancer)' 부문과 '최우수 남성 무용수(Male Dancer)' 부문 후보로, 솔리스트 겸 안무가 강효형은 '안무가(Choreographer)' 부문 후보에 올랐지만, 수상에까지 이르지 못했다.

2016년 브누아 드 라 당스에서 '최우수 안무상' 수상의 영광을 안은 스페인국립무용단(안무 요한 잉게)의 '카르멘'도 한국을 찾아 관심을 끌었다. 카르멘은 원작의 관능적 에너지는 그대로 가져오되 독창적 안무와 현대적인 의상, 비제의 원곡을 편곡한 음악 등을 추가해 새로운 매력을 발산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사전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여러 노력도 이어졌다. 국립발레단은 올림픽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의미로 신작 '안나 카레니나'를 선보였다. 취리히발레단의 예술감독 크리스티안 슈콕이 2014년 초연한 작품으로, 소용돌이치는 등장인물들의 감정을 아름다운 의상과 낭만적인 러시아 음악, 섬세한 연출로 풀어내 호평을 받았다.



▲ 10월 24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열린 국립발레단 '안나 카레니나' 기자회견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있다.

영화

■ 개요

2017년 극장 관객 수는 5년 연속 2억 명을 돌파했다. 2016년에 비해 관객 수는 1.3%, 영화산업 전체 매출은 2.4% 증가하며 사실상 제자리에 머물렀다. 국민 1인당 연평균 관람 횟수는 4.25회로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 있어 영화시장의 성장 동력을 더 이상 찾기 힘든 상황이다.

2017년 개봉작 가운데 1천만 관객을 넘긴 영화는 '택시운전사'와 '신과 함께-죄와 벌' 2편이었다. 실화를 소재로 하거나 묵직한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작품 여러 편이 흥행에 성공했다. 그러나 영화제작이 범죄물에 쏠리는 현상은 여전했다. 페미니즘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영화계의 불평등한 관행도 도마 위에 올랐다.

■ 영화산업 매출액 3년 연속 2조원대···관객 수 6년 만에 감소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2017 한국영화산업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전체 영화산업 매출은 2조3천271억원으로 2016년 대비 2.4% 증가해 2014년부터 4년 연속 2조원대를 이었다. 그러나 2017년 GDP가 3.1%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영화산업 시장은 제자리걸음을 했다.

극장 관객 수는 2억1천987만 명으로 2016년 대비 1.3% 증가했고 입장권 매출액은 1조7천566억원으로 0.8% 늘었다. 관객 수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한국영화 관객 수는 2.7% 줄어든 1억1천390만 명이었다. 한국영화 관객 점유율은 51.8%를 기록했다. 인구 1인당 연평균 영화 관람횟수는 4.25회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디지털 온라인 시장의 매출은 4천362억원을 기록했다. 2016년 대비 5.7% 성장했지만 성장률은 낮아졌다. 플랫폼별로는 IPTV와 디지털 케이블 TV의 매출액이 3천543억원으로 전체 시장의 81.2%를 차지했고 인터넷 VOD(주문형 비디오)가 75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영화의 해외매출액은 1억1천879만 달러로 2016년 대비 17.5% 늘어났다. 완성작 수출은 4천72만 달러로 7.2% 감소한 반면, 서비스 수출액은 7천806만 달러로 36.5% 늘어나며 해외 매출 증가를 견인했다.

완성작 가운데 '강철비'와 '염력' 등이 국내 개봉 이전에 넷플릭스에 팔리는 등 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의 한국영화 구매가 두드러졌다. 서비스 분야에선 텍스터스튜디오 등 VFX(시각특수효과) 업체의 중국 대작 수주가 돋보였다. 중국 수출액이 2016년 대비 45% 증가한 5천477만 달러를 기록했다.

■ 100억원대 영화 8편···평균 수익률은 크게 떨어져

영화진흥위원회가 2017년 극장에서 개봉한 한국영화 376편 가운데 40회 이상 상영된 작품 174편을 대상으로 제작비를 조사한 결과 순제작비와 마케팅비를 포함한 총제작비는 4천582억원으로 집계됐다. 편당 평균 총제작비는 26억원으로 2016년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마케팅비를 제외한 순제작비를 놓고 보면, 100억원 이상이 들어간 작품이 8편으로 2016년 5편에서 증가했다. 반면 순제작비 70억~100억원의 영화는 4편으로 2016년 10편에서 절반 이하로 줄었다. 영진위는 70억원 이상의 이른바 고예산 상업영화의 순제작비가 100억원대로 상승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전체 작품 가운데 상업영화 83편의 평균 총제작비는 52억9